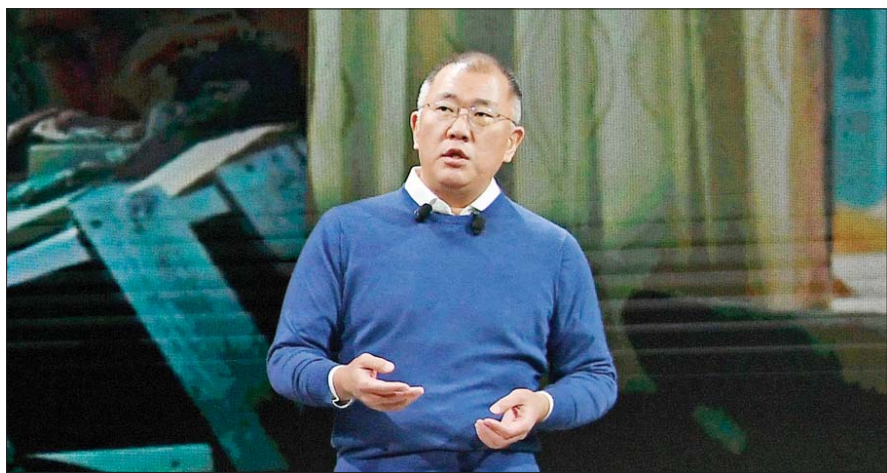


정의선 “로봇을 휴대폰처럼... ‘스팟’, 일상에 자리 잡을 것”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올해 자동차 시장 5~8% 성장 전망
국내·글로벌 등 기업간 협력 모색
“로보틱스 기술로 인류의 삶 기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2022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먼 나날 꿈이 아닌 현실이다.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미디어 컨퍼런스를 끝낸 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로봇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코로나19속에서도 참관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서 배우러 왔다”고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전한다”며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정 회장은 로봇이 인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스팟을 데리고 다니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현대차가 로보틱스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이유를 인류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

서라고 대답했다. 인류가 보다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소외계층이나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 회장은 “로봇이 점점 인간과 가까워지고 있다. 매일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는 휴대폰처럼 사람들이 스팟(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데리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로봇) 인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로봇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보틱스는 자동차와 연결되는 개념이라며, CES에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가 아닌 로보틱스를 주제로 삼은 이유도 밝혔다.

정 회장은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UAM(도심형 모빌리티)을 2년 전 소개했다”며 “로보틱스가 앞으로는 많이 보급

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고 또 평가 받고 또 방향성 잡아야 할 것은 잡기 위해 로보틱스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로보틱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됐다”며 “인류를 위해, 저희는 인류가 보다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소외계층이나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는 답변했다.

자동차와 UAM에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로보틱스가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보틱스도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CES에서 먼저 소개하고 평가받아 방향성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메타 모빌리티가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유보했다.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발전과 연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이번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하는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택근무가 늘어나도 공장 인력은 전체가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 메타모빌리티 시대에는 모두가 사무실이나 재택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장 큰 변화를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5~8% 성장을 점쳤다. 반도체 수급이나 원자재 수급상황을 변수로, 코로나19는 오미크론으로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보다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점 사업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꼽았다. 여기에 커넥티비티를 추가해 사람과 로봇, 메타버스를 연결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어떤 기업과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다고 정 회장은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한종희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

〈삼성전자 부회장〉

‘미래를 위한 동행’ 주제 기조연설
비스포크 ‘#YouMake’ 프로젝트
글로벌 가전 연결 ‘HCA’ 발족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부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팔라조 볼룸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 부회장은 기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연결성과 맞춤화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우선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일상’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제품 개발에서 유통과 폐기까지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가전과 반도체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카본 트러스트’ 인증을 받고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대폭 확대하는 등이다. 포장재도 재활용 소재

디스플레이 ‘오디세이아크’, 게이밍 허브 등이다.

‘비스포크 홈’ 확장 계획에 더해 자신만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YouMake’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 라이프스타일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싱스로 연결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홈 허브’도 소개했다. 태블릿 형태로 집에 두고 가족과 함께 공유 가능한 제품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고 확인하거나 빅스비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

글로벌 가전들을 연결할 수 있는 ‘HCA’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GE, 하이얼과 일렉트로룩스 등 주요 가전사들과 함께 IoT 표준을 정립해 플랫폼을 통일하는 내용이다.

한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솔브 포 투마로우’와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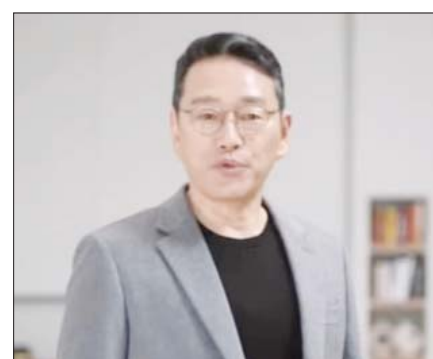
한 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동행은 꼭 실천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조주완 “혁신 가전 통해 더 나은 일상 제공”

〈LG전자 사장〉

‘LG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간담회
AI 기반 모빌리티 ‘LG옴니핏’ 눈길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CES 공식 사이트에서 ‘LG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2’를 통해 세계 무대 데뷔를 마쳤다.

조 사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8시 CES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된 ‘LG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혁신 가전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우리 역할은 여러분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해 여러분의 여정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라며 “고객의 편리와 재미는 물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고객경험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The Better Life You Deserve)’을 주제로 ▲고객의 더 나은 일상 ▲모두의 더 나은 일상 ▲미래의 더 나은 일상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 소개했다.

LG전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을 위한 가전을 소개했다. LG전자의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는 정화한 공기를 원하는 온도에 맞춰 보내준다. 계절에 따라 맞춤형 바람을 제공하는 기능도 소개했다.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서 보던 요리 레시피를 부엌의 무선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로 전송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ESG 지향점을 담은 기술도 소개했다. 영상에 공개된 LG 사운드바 에클레이는 제품의 외관을 감싸는 소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포장재는 폐지와 골판지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어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 적

은 만큼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기후 전문가와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검토하고 검증한 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제품 생산에 쓰이는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LG 옴니핏’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옴니핏은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이다. 내부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행자를 감지해 위험을 경고해주는 모바일용 보행자 안전 애플리케이션과 곡면형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차량 내부 전면에 장착하는 LG 콕핏 등도 소개했다.

공간을 안내해주는 LG 클로이 가이 드봇과 서빙로봇인 클로이 서브봇도 소개했다. 실내에서는 문턱을 넘거나 바깥에서도 계단이나 오르막을 주행하는 도어 투 도어 배달로봇도 소개했다.

조 사장은 “모빌리티는 초고속 모바일 통신에 기반한 디지털로 통합된 콕핏 멀티모달 방식을 지원하겠다”며 “새로워진 차량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공개

소형 프로젝터 형태... 180도 회전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스크린이 나왔다. 화질 보정 수고를 최소화한 프로젝트,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이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CES

2022에서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을 공개했다. 북미를 시작으로 전세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더 프리스타일은 소형 프로젝터 형태 제품으로,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무게도 830g에 불과, 180도 자유자재

로 회전시켜 벽이나 천장, 바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대 화면은 100형이다. 선명한 저음역대를 구현하는 360도 사운드 기능도 내장했다. 고성능 TV 프로세서 기술로 콘텐트 최적화도 가능하다. 스마트 TV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